

문맥과 해석의 1 대 1 대응*

강영세

국민대학교, yskang@kookmin.ac.kr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문맥과 해석이 1 대 1 대응을 갖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먼저,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입증한다. 실험 결과의 논의에서는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문맥효과를 해석과 연결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수없이 많은 가능한 해석 중에서 하나의 가능한 해석만을 선택한다. 즉, 문맥은 해석선택장치로서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둘째로,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연역과정을 단축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문맥은 추론제거장치로서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해석선택장치로서의 문맥과 추론제거장치로서의 문맥은 문맥과 해석이 1 대 1 대응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문맥, 해석, 1 대 1 대응, 등위접속문, 처리시간, 해석선택장치, 추론제거장치

* 이 논문은 2006년 4월 22일에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2006년도 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심리적 실재로서의 문맥효과”를 수정한 것이다. 초고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윤종열, 최재용, 염재일, 이선우, 이성범, 김두식, 강명운, 유은정, 고광윤, 장영준, 황규홍, 김광섭, 김명배, 김선희, 서진희, 문순표, 노은주, 강해경, 김우영, 이기중 교수 및 담화인지언어학회에서의 발표 때에 많은 훌륭한 조언을 해주신 김용진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모든 잘못은 필자에게 있다.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문맥 (context)과 해석 (interpretation)이 1 대 1 대응 (one-to-one correspondence)을 갖는 것과 문맥이 운용자 (operator)로서 해석의 값을 결정함으로써 문맥과 해석이 (1)과 같은 함수관계를 갖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1) C_I , where $C = \text{context}$,
 $I = \text{interpretation}$

먼저,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 (processing time)을 단축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입증한다.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문맥효과를 해석과 연결하여 살펴보자. 첫째로,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수없이 많은 가능한 해석 (possible interpretation)중에서 하나의 가능한 해석만을 선택한다. 수없이 많은 가능한 해석을 처리하려면 처리시간이 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가능한 해석만을 처리한다면 처리시간이 짧을 것이다. 그런데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수없이 많은 가능한 해석 중에서 하나의 가능한 해석만을 선택한다. 즉, 문맥은 해석선택장치로서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둘째로,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연역과정 (deductive process)을 단축하는 효과를 갖는다. 문맥이 없는 등위접속문의 해석에는 많은 추론이 필요하지만, 문맥이 있는 등위접속문의 경우에는 그 많은 추론이 이미 문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문맥은 추론의 숫자를 줄이거나 추론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등위접속문의 연역과정을 단축한다. 연역과정이 복잡하면, 처리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추론만을 처리하면 되거나 아예 추론이 없어서 연역과정이 단순하면, 처리시간이 짧을 것이다. 그런데 문맥은 추론의 숫자를 줄이거나 추론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등위접속문의 연역과정을 단축한다. 즉, 문맥은 추론제거장치로서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해석선택장치로서의 문맥과 추론제거장치로서의 문맥은 문맥과 해석이 1 대 1 대응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문맥과 해석의 1 대 1 대응은 문맥이 운용자로서 해석의 값을 결정함으로써 문맥과 해석이 (1)과 같은 함수관계를 갖는 것을 입증한다.

2. 실험설계

2.1 실험참가자

첫 번째 실험에는 국민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 10명이 참가했고, 두 번째 실험에는 국민대학교의 한국인 학생 10명이 참가했다.

2.2 실험도구

실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첫 번째 실험은 두 종류의 *and*-등위접속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종류는 문맥이 없는 14개의 *and*-등위접속문이다. 두 번째 종류는 문맥이 있는 14개의 *and*-등위접속문이다. 두 번째 실험은 두 종류의 우리말 등위접속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종류는 문맥이 없는 14개의 우리말 등위접속문이다. 두 번째 종류는 문맥이 있는 14개의 우리말 등위접속문이다.

3. 실험결과

문맥이 없는 *and*-등위접속문을 해석하는 데에 걸린 평균시간은 3.3초이다. 문맥이 있는 *and*-등위접속문을 해석하는 데에 걸린 평균시간은 1.963초이다. 문맥이 있는 *and*-등위접속문을 해석하는 데에 걸린 평균시간 1.963초는 문맥이 없는 *and*-등위접속문을 해석하는 데에 걸린 평균시간 3.3초보다 1.337초가 단축된 것이고 비율로는 무려 40.5%가 감소한 것이다. 문맥이 없는 우리말 등위접속문을 해석하는 데에 걸린 평균시간은 3.598초이고, 문맥이 있는 우리말 등위접속문을 해석하는 데에 걸린 평균시간은 2.632초이다. 문맥이 있는 우리말 등위접속문을 해석하는 데에 걸린 평균시간 2.632초는 문맥이 없는 우리말 등위접속문을 해석하는 데에 걸린 평균시간 3.598초보다 0.966초가 단축된 것이고 비율로는 26.9%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험결과는 문맥이 등위접속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보여준다.

4. 실험결과에 대한 논의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 십일월이 되었고 관광객이 뚝 끊겼다.
- (3) 군인들이 온종일 비를 맞고 행군했다.¹⁾

(2)와 (3)은 다음과 같이 많은 가능한 해석(possible interpretation)을 갖는다.

- (4) a. 비수기인 십일월이 되었고 관광객이 뚝 끊겼다.
- b. 십일월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뚝 끊겼다.²⁾
- c. ...
- (5) a. 군인들이 온종일 비를 맞았다. 비가 개었다. 그러나 군인들이 젖은 옷을 말릴 틈도 없이 곧바로 행군했다.
- b. 군인들이 온종일 비를 맞으면서 행군했다.
- c. ...

(5 a)에서는 “비를 맞는 것”과 “행군하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지만 (5 b)에서는 “비를 맞는 것”과 “행군하는 것”이 동시 사건이다.

그러나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면, 문장의 해석은 많은 가능한 해석 중에서 한 가지 해석만으로 좁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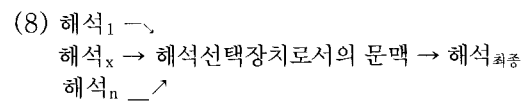
1) 다음 예문을 보자.
 (i) 군인들이 총을 들고 행군했다.
 (i)에서 “총을 든 것”과 “행군하는 것”은 동시 사건의 의미만을 갖는다. (i)은 강명윤 교수가 필자에게 지적해주었다.

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i)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장소인 강원도 용평에는 십일월부터 외국 관광객이 몰려 들곤 했다. 그러나 금년 십일월부터는 외국 관광객이 제주도도 몰려들어서 강원도 용평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ii) 단풍놀이의 절정은 시월이지만 행락인파는 십일월까지 이어진다. 비록 단풍놀이의 끝자락이지만 십일월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큰 산불이 발생하여 강풍을 타고 사방으로 번지면서 관광객이 뚝 끊겼다.

(6) 해수욕장은 여름철이 성수기이고 십일월은 비수기이다. 십일월이 되었고 관광객이 뚝 끊겼다.

(7) 군대의 훈련에 있어서 행군은 필수적이므로 행군은 비가 오더라도 강행된다. 군인들이 온종일 비를 맞고 행군했다.

문장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때, 문맥은 문장의 다른 해석은 배제하고 한 가지 해석만을 문장의 최종적인 해석으로 선택한다. 그러므로 문맥은 해석선택장치(interpretation selector)이다. 이러한 해석선택과정은 (8)과 같다.



여러 가지 해석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가지 해석을 처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다. 그 결과,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이번에는, 예문 (9)를 살펴보자.

(9)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고 주한미군의 숫자가 감소되었다.

(9)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주한미군 숫자의 감소’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 (semantic relation)을 이끌어내려면, 많은 추론 (inference)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추론이 필요하다.

- (10) a.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이라크 반군의 저항이 격렬했다.
- b. 이라크 반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계속적으로 증강되었다.
- c. 미국은 미국 본토의 병력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미군에서 일부 병력을 차출하여 이라크로 파견했다.
- d.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일부 병력이 차출되어 이라크로 파견되었다.
- e.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숫자가 감소되었다.

Levinson (1983)은 추론을 ‘잃어버린 고리

(missing link)'라고 부른다. 즉, 추론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주한미군 숫자의 감소'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이제, (11)을 살펴보자.

(11) 걸프전의 와중에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계속적으로 증강되었으며 미국은 미국 본토의 병력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미군에서 일부 병력을 차출하여 이라크로 파견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일부 병력이 차출되어 이라크로 파견되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고 주한미군의 숫자가 감소되었다.

(11)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주한미군 숫자의 감소'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 이유는 (9)의 해석에 필요한 많은 추론이 (11)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1)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해석자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즉, 문맥은 추론의 숫자를 줄이거나 추론을 완전히 없앤다. 그러므로 문맥은 추론제거장치 (inference eliminator)이다. 이러한 추론제거과정은 (12)와 같다.

(12)추론₁ -

추론_x → 추론제거장치로서의 문맥 → 추론_m
추론_n → (m < n, m ≥ 0)

많은 추론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가지 추론만을 처리하거나 아예 추론이 없으면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다. 문맥은 '연결 고리 (connecting link)'로서 (12)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추론을 제거함으로써, 등위접속문의 연역과정

참고문헌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New York: Academic Press.
Kang, Y.-S. and J.-Y. Yoon (2005)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ing Time of *and*-Coordination. Presented at the 2005 KASELL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KASELL).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deductive process)을 단축한다. 연역과정이 복잡하면 처리시간이 길지만, 연역과정이 단순하면 처리시간이 짧을 것이다. 그런데 문맥은 추론의 숫자를 줄이거나 추론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등위접속문의 연역과정을 단축한다. 그 결과, 문맥은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한다.

정보이론 (information theory)의 관점에서 (8)과 (12)를 살펴보자. 해석선택과정인 (8)은 문맥이 한 가지 해석만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8)은 문맥과 해석이 1 대 1 대응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추론제거과정인 (12)도 문맥이 한 가지 해석만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추론이 쌓여서 문맥을 형성하는데, 그 문맥에 적합한 해석은 단 하나뿐이다. 즉, (12)도 문맥과 해석이 1 대 1 대응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13)이 입증된다.

(13) 문맥과 해석은 1 대 1 대응을 갖는다.

(13)은 문맥이 인간의 인식체계 (cognitive system)에서 활동하는 실체임을 보여준다. 해석은 아직 그 값 (value)이 확정되지 않은 변항 (variable)이고, 문맥은 해석의 값을 확정해주는 운용자 (operator)이다. 즉, 문맥과 해석은 (1)과 같은 함수관계 (f_x)를 갖는다.

5. 결론

이 논문은 첫째로, 실험을 통하여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입증했다. 이 논문은 둘째로, 문맥이 등위접속문의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구명했다. 이 논문은 셋째로, 문맥과 해석이 1 대 1 대응을 갖는 것을 입증했다.

Cambridge University Press.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Schmerling, S. F. (1975) Asymmetric Conjunction and Rules of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New York: Academic Press.